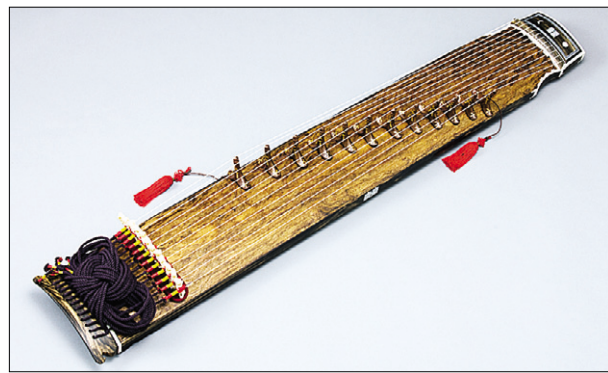


진영만 '가야금' 대통령상

제34회 전승공예대전 11일까지



제3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영만 작 '산조가야금'.

잔잔한 파도도 바다이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파도만이 바다의 전부라 할 수는 없다. 점점 서구화 문화에 밀려 우리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잃게 되는 요즘, 전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장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고요한 외침이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근무)과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전협회(이사장 박찬수)가 주최하는 제3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이 9월 29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승회관에서 개막식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0개 분과로 25종목 447종 1072점이 출품됐으며, 이 중 193종 5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대통령상은 공예악기부분에 진영만씨의 '산조가야금' 이 그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박찬수 위원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순한 미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보다는 미와 더불어 기능의 중요성을 많이 봤다. 그러한 면에서 진영만의 작품 '산조가야금'은 고르고 여운이 긴 소리와 아름다운 음색이 탁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영만씨는 "대한민국공예대전에서 12년째 출품을 했다"며 "특히 이번은 대통령상을 받아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진 작가는 수상소감에 "무엇보다 전통기법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 전통의 맥을 잇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래도 내가 전통을 잇는 이로써 이런 문제를 보완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지난 34년 간 우리 전통공예 전승의 주춧돌이 되어 온 공모전으로, 중요무형문화재와 많은 기능보유자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행사는 이번 역할 좀 더 본격화 하고, 많은 이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전년까지 다소 조용히 치러왔던 행사를 홈페이지 런칭, 기자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해 우리 선조의 미감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고유의 미를 맘껏 뽐냈다. 또한 10월 4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전통문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통문화가 현대사회에서 보존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그래서 이번 행사는 더욱 신경을 썼으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전통문화는 불교문화에서 많이 형성됐으므로, 현대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전시는 9월 29일~10월 11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승회관에서 열린다. (02)3453-1685

이은정 기자

달마가 꽃을 든 까닭은?

'적염산방' 서 이심전심 달마와 소통하다

김양수 화백, 10월 6~31일 해인사서 개인전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퇴근길 회사 앞에서 꽃을 들고 서있는 모습.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고 떨리겠는가.

일후 김양수 화백은 이런 여성(女心)처럼 자신도 설레고 싶었던 것일까. 아님 회사 앞에서 꽃을 들고 서있는 연인처럼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식가께서 꽃을 들어 보이니 가섬께서 미소 지었다. 달마께서 오늘 내게와 꽃을 들면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을까."

10월 6~31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김 화백의 이번 개인전 속의 달마 대사는 꽃을 든 채 초연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꽃을 든 달마 대사의 모습은 여인이 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누굴 기다리는 듯 설레어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달마가 꽃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 달마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며 "세상이 꽃 한송이를 통해 이심전심(以心傳心)을 느끼듯 서로가 미소 지으며 소통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나"고 말한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되는 그의 작품들은 모두 제목이 없는 무제(無題)들이다. 그가 작품들을 모두 무제로 한 이유는 제목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각자의 감성으로 그림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유에서였다. 그래서인지 꽃을 든 달마 대사의 모습은 더 아련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원철 스님(해인사 문수암)은 김양수 화백의 그림에 대해

"언어를 다 집어던진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화(禪畵)"라고 말했다. 원철 스님이 김 화백의 그림을 두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그가 작업을 위해 문명을 떠나 자신을 스스로가 두고는 둔 생활을 하는 이유도 한



김양수 화백의 달마도는 제목이 없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opia.com

'동국 예소리' 창단

東大 문화예술대학원 10일 창단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범패'의 한 장면.

불교음악 인재들을 활용, 불교계의 문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동국대 동문과 재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은 동문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예술단 '동국 예소리'를 창단해, 10월 10일 오후 7시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창단 공연을 갖는다.

단원들은 모두 현재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로, 이번 공연은 그들의 예술성과 끼가 맘껏 발산되는 명품공연이 될 예정이다. 공연은 설명을 덧붙인 범패와 작법, 영산회상, 판소리, 민요, 산조, 삼현육각, 승무, 살풀이, 학춤, 토막 창극, 창작 음악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 대해 '동국 예소리'의 단장을 맡은 김병욱 문화예술대학원장은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의 종립대학으로서 세계적으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범패나 작법을 불교신도나 각 사찰에 먼저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국 예소리'는 동국대학교가 한국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불자들에게 한국전통예술과 불교문화의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예술단이다. 이들의 이러한 예술 활동은 동국대와 문화예술대학원의 홍보와 학생유치, 포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국 예소리'는 문화예술대학원의 최첨단 교수들 주축으로 정각원, 이해당예술극장 등 동국대 교내 공연 및 사찰 투어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은 안숙선, 이춘희, 강정숙, 이춘목, 정화영 등 인간문화재와 김영인, 조흥달, 유창, 김성수, 조갑룡 등의 명인명장들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02)2260-3606

이은정 기자

오대산자락서 불교문화 향연

월정사·강원일보 '생명의 시원과의 만남'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범)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가 10월 16~18일 '생명의 시원과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리는 오대산 불교문화축제는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3일간 치러지는 이번 축전은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강원도민 및 많은 불자들에게 오감만족을 시켜줄 예정이다.

주요행사로는 △불교의식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한강시원제·유등제 및 만등밝히기 △사찰의 대중화를 알리는 산사음악회 공연 △불교 차인대회 △불교전시 및 학술 △불교 수행 및 문화 체험 등 이밖에 많은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033)339-6800

이은정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2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1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1월 5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